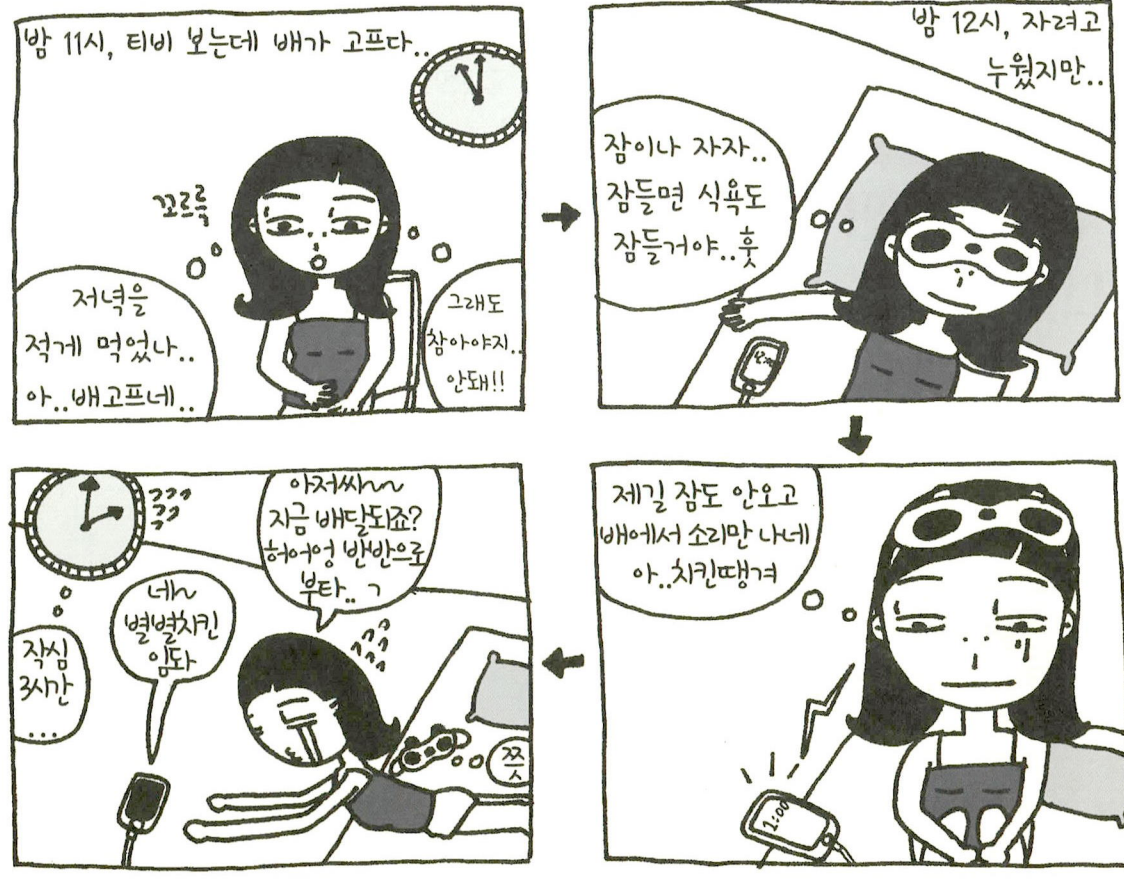


무엇에도 할 수 있는 것일까

버레벨튼
By 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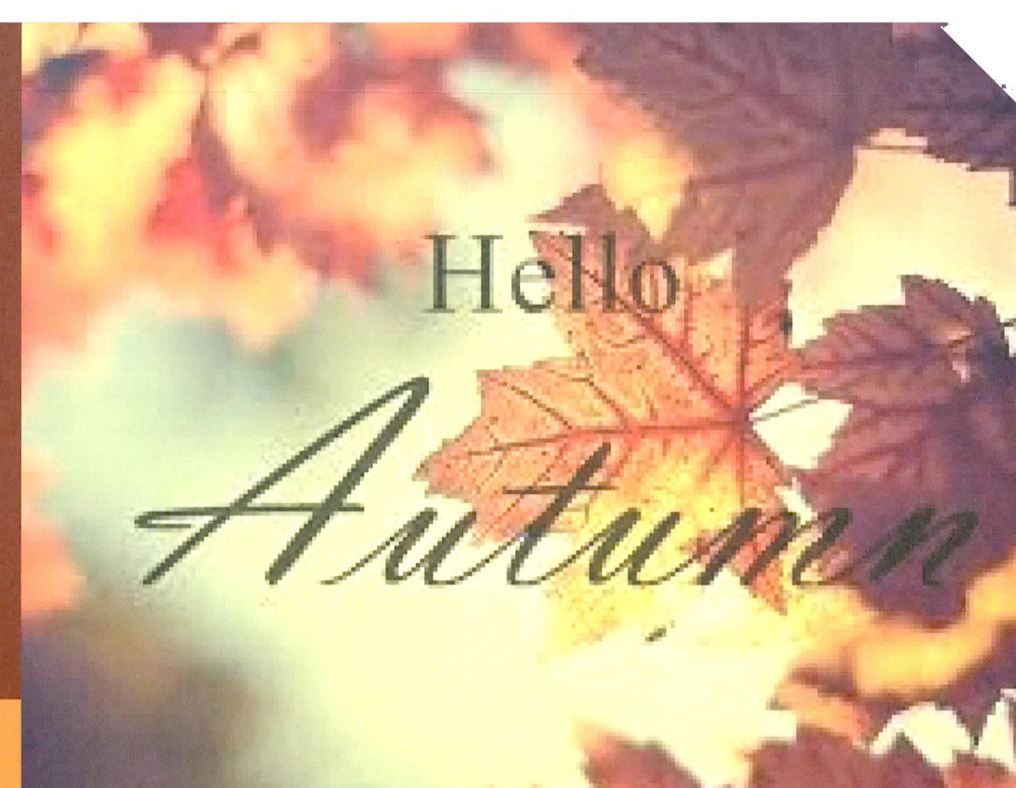
깊어가는 가을밤, 폭발하는 식욕.



별별신문
2014년 9월 Sep.

13호

★★ news paper



| 발행일자 | 2014년 9월 1일 월요일
| 발행인 | 별별신문_부.송.용.유나.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망 망 한상

밀회 아 니 야
사랑과 전쟁이고 아니야

JTBC 유나의 거리 - 독사충에 물린 미션편

★ 여기 한 여자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꽃뱀.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서 유나의 룸메이트로 나오는 미션이다. 물주인 남자가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는 미션은 다른 때는 설렁설렁하고 착해도 남자를 홀리는 재주가 남다르다. 늘 미션을 줄줄 쫓아다니며 목을 매는 유부남은 미션의 밀당에 애간장이 녹는다. 너무나 갖고 싶던 명품 시계를 선물해도 안 받겠다고 하며, 순정함(?)으로 승부하는 그녀, 다시 남자는 애걸복걸, 안절부절이다. 남자의 부인은 미션에게 다시는 안 만난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준다. 그러던 어느날,

★ 호스트바에서 만난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듯한 연하남(민규)에게 서서히 빠져든다.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앓이까지 가는 미션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며, "밀회에서 김희애의 기분을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민규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민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되레 화내고, 급기야 카드를 가져가서 다른 여자에게 명품백을 사준다. 이 남자 이상하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규는 "등쳐먹은 유부남 숫자가 몇 명이나"며 미션을 만신창이가 되게 때리고 미션은 갈비뼈에 금이 간 채 입원한다. 하지만 미션은 아직도 이게 사랑이라 믿는다. 그 동안 민규에게 뜯긴 돈만 3800만원, "꽃뱀이 독사한테 물렸네 ㅠㅜ"

★ 꽃뱀이라며 여자를 욕하는 얘기는 많지만, 민규 같이 비열한 남자 꽃뱀이 나온 것은 새롭다. 이런 남자애들은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들한테도 잘 들러붙는다. 이런 종류의 남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말을 찾고 있는데 '독사'라는 표현도 너무 착하다. 蟲(벌레 충)을 붙여서 "독사충" 어쩌한가. 언니들도 독사충 조심하세요~!!

[숨]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Q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A 제가 3년 동안 한 가게에서 일하고 나왔는데요, 임금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해 봐서 나쁠 건 없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물론 매 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게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직종과 관계없이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고, 과정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밀린 돈을 안 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에 가게 업주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요. 신고는 가게가 있는 지역의 노동청에 해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합니다.

★ 매 달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 게 아니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이미 일한 거잖아요.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이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지를 자세히 진술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하거나 동료의 증언을 받거나 가게 업주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장부가 있거나 등등으로 내가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소송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면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여성긴급전화 1366)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흥업소에서 밀린 임금을 받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언니들, 돈도 안 주는 가게라면 빨리 그만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유나]

? 일하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질문주세요. (eloom2003@naver.com)

추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명절이다. 많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실어 나른다. 손에는 과일바구니와 선물꾸러미가 가득하다.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집, 그곳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와 TV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명절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명절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송]

“새벽까지 뽕세게 일하고 나면 입맛이 떨어져서 명절음식 먹지도 못했어.”

“예전에 집결지에서 일했을 때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업주가 안 보내줬으니까. 빚값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에 가냐고 혼내는 업주도 있었고. 그리고 명절 때는 손님이 많이 와서 죽여라 일을 했지. 이모들이 명절 음식을 가져다주긴 했는데 새벽까지 뽕세게 일하고 나면 입맛 떨어져서 먹지도 못했어. 제주도에서 일했을 때는 명절날 집에 가고 싶어서 ‘저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갈수만 있다면’ 하면서 바닷가 방파제 앞에서 갠소주 마시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 -이봄날(43, 부산)

이런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그리운 집에 가지 못하고 돈만 부칠 수밖에 없었던 혹은 돈도 부칠 수 없었던 경험. 그럴 때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간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선물 꾸러미가 나를 더 쓸쓸하게 하는 명절 시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술? 맛있는 음식? 어쩌면 나 혼자만 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을 나눌 그 누군가를 찾기엔 이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개의 소주잔보다는 두 개의 소주잔이 사무치게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번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한다면 함께 소주잔을 기울일 누군가를 찾아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듯. 물론 외로운 시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사기 조심, 두 번 조심!!!

“조상님이 아닌, 내가 추모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나만의 차례상 차리기”

송현씨는 재작년 추석부터 시작해, 벌써 4번의 차례상을 차렸다. 처음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친한 동생을 위한 것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대상이 늘어났다. 영화를 보고 좋아하게 된 여배우가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배우도 차례상에 모셔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총 3명을 위한 차례상이 되었다. 조상님이 아닌 내가 추모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나만의 차례상을 차리기. 복잡한 상차림 예법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음식 종류도 차리는 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큰 품 들이지 않고도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팁이다. 누군가가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기억하며 알뜰살뜰 소박한 차례상을 차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 켠이 훈훈해져 오기도 한다.

“전 명절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차례상을 차려요. 몇 년 전에 친한 동생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차려놓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편히 들어오라고 문도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그 애가 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일부러 제사음식을 마련하지는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걸 차려놓아요.” -김송현 (38, 서울)



<사진> 작년 추석에 송현씨가 차린 차례상, 짜이(인도식 밀크티)와 감자전, 깎지 않은 밤과 정성스레 잘라놓은 멜론이 인상적이다.

닥터Ssong의 30초 건강 정보

자주 토하면 나중에
틀니를 꺼야 한다고?!



Q. 저는 살은 빼야 하는데 먹는 욕심이 많아서 “구토 다이어트”를 해요. 먹고 나서 토하는 거죠. 또 술 취하면 빨리 술 깨려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잇몸이 상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도 안 되고 틀니를 꺼야 한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위산은 꽤 강력합니다. 웬만한 음식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구토를 하면, 위 안에 있던 음식물과 함께 위산이 같이 넘어옵니다. 그 강력한 위산이 식도를 타고 입 안으로 넘어오면서 부드러운 식도와 잇몸을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잇몸 전체가 위산에 의해 녹아 내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땐 잇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틀니를 끼게 된 환자들도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토하는 방법으로 술을 깨는 습관 또한 꼭 고치셔야 합니다. 일의 특성상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면, 약국에서 파는 엠플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훨씬 좋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틀니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토하는 것이 간편하고 돈도 안 들어서 당장은 좋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건강도, 미모도, 돈도 잃기 쉽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송]

이바닥뉴스



캐나다 법무부, 새로운 스웨덴식 성매매법안 상정

캐나다 법무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성구매 수요 감소’라는 3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매매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노르딕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성구매자와 성매매 포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제안된 성매매 관련법은 성매매를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착취구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stop.or.kr/sub030301/34489>)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관련 단체, 연구자, 현장활동가, 성매매경험당사자 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에는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캠페인 계획도 있다. 방지법은 1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할 과제를 안고 또 10년을 향해 걸어가야겠다. [뿌]

별별신문 이용 안내 (원고료 지급)
유형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으신 다양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eloom2003@naver.com
010-8230-6279

심리상담 연극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끔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나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립니다.